

‘그린 사업’ 글로벌 인재 잡아라… SK이노 경영진 총출동

내달 2일 미서 글로벌 포럼 개최
그린 분야 우수 인재들 대거 초청
김준 사장, 직접 미래 비전 공유

SK이노베이션은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 달성을 위해 글로벌 인재 영입에 드라이브를 건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포럼’을 열고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환경, 친환경 소재 등 회사가 집중 육성 중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대거 초청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진행해온 행사를 핵심 기술 인재가 밀집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을 영입해 회사가 추진 중인 딥체인지를 통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중심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카본 투 그린’ 전략 달성을 위해 핵심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7월 스토리데이에서 회사의 친환경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행사인 만큼 경영진이 직접 나선다. 김준 총괄 사장은 참석자들에게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린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김준 총괄 사장은 “회사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 확보에서 시작한다”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채용

해 파이낸셜 스토리 완성과 기업 가치 혁신 전략인 ‘카본 투 그린’을 반드시 달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사업 지동섭 대표는 직접 배터리 인재 확보에 나서 회사를 글로벌 톱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 이장원 배터리 연구원장 등 회사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임원들도 집

중적으로 육성 중인 기술에 대해 인재들과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와 소재 사업을 필두로 친환경 사업으로 체질을 바꿔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터리 사업은 이미 수주잔고 1000기가와트시(GWh)를 확보해 이분야 글로벌 선두권에 올라왔다. 2017년 수주잔고가 60기가와트시였던 것을 감안하면, 16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배터리 사업은 다음 달 1일 분사해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한다.

배터리 소재 사업 회사 SK아이아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사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프리미엄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Lithium ion Battery Separator)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올해 5월 IPO에 성공하며 배터리 소재 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SK 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변경한 SK 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하며 석유화학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화학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최경락 SK이노베이션 인재 개발 실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긴 하지만,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일본 등으로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카본 투 그린’으로 탄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전략은 ▲ 배터리를 중심으로 분리막,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그린 포트폴리오 강화 ▲ 기존 사업을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 온실가스 배출 0(제로)인 넷 제로(Net Zero) 조기 달성을 크게 3가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전장사업 질주… 사이버보안기업 인수

이스라엘 ‘사이벨럼’ 주식 매매계약
인포테인먼트·텔레메틱스 보안 ↑

LG전자 자동차 보안 기술을 강화하며 미래차 부품 시장 선점에 나선다.

LG전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업 사이벨럼을 인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이벨럼은 2016년 설립된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보안 솔루션 업체다. 소프트웨어 분석 ‘멀티플랫폼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 등과 협업하며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업 가치는 약 1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이다.

LG전자는 주식 매매계약으로 사이벨럼 지분 63.9%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올 연말 최종 지분과 투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2000만 달러 규모 신주 투자 계약으로 2022년 말에서 2023년 상반기 사이에 추가 지분까지 확보해나온다.

LG전자는 자동차 산업에서 보안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벨럼 인수를 결정했다. 인포테인먼트와 텔레메틱스 보안을 높여 글로벌 규제에 선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벨럼은 LG전자에 인수된 뒤에도 기존 경영진들과 함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LG전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을 조기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벨럼 CEO 슬라바 브론프만은 “사이벨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을 앞세워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안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왔다”며 “LG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비전의 실행을 더욱 기속화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 본부 김진용 부사장은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차 커지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이벨럼 인수는 미래 커넥티드 카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LG전자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국타이어 지속 가능한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 구축 추진

생산성 향상으로 재배자 지원 등
GPSNR 가이드 맞춤 정책 공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하기 위해 GPSNR 가이드 맞춤 정책을 23일 공표했다.

이번 천연고무 정책 제정은 지속 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GPSNR 가이드에 맞춰 진행됐다.

GPSNR에는 타이어 제조사, 비영리 시민단체(NGO), 고무 재배자·가공자가 참여한다. GPSNR 창립 멤버인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처음 천연고무 공급망의 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정책을 제정했던 한국타이어는 이번 개정된 정책을 통해 한층 강화된 가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의 약 85%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재배되며, 산업의 고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연고무의

지속 가능한 가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 수립 배경으로 삼았다.

정책에서 가장 먼저, 재배 모범 관행을 과악하고 천연고무 생산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 수확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천연고무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재배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 천연고무 정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급업체에도 제안하고, 이들이 계약 및 참여 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목표와 정책 이행 계획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천연고무 정책의 계획과 성과를 최소 연 1회 투명하고 충실히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모습이다.

택배 물동량은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매년 10% 안팎씩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엔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평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연말까지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 경우 연간 택배 물동량은 ‘40억 상자’ 도달 가능성을 예상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올해 1~5월까지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11.5% 느는데 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택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증가했다. 특히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가 72.5%나 증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 48.3%나 느는 등 먹거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한국교통연구원은 올초 발간한 ‘2021 물류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로 급성장한 택배 시장이 올해에도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엔 지난해 상승률 보단 낮은 12.1% 증가할 것이라며 38억 개 정도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은 “올해 택배 물동량은 급성장한 지난 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년 수준(약 10%)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더 늘고, 감염 확산세는 줄어들더라도 택배의 편리함과 효용성을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체험한 만큼 관련 시장은 당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o@